



코소보 선교편지

2022. 7 K.P.M 조진호/염자애/수아(11)/안나(8)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33)



기도제목

1. 주님의 뜻을 구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2.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내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3. 영육이 강건하게 하소서
4. 수아, 안나가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 하게 하소서
5. 코소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소서
6.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하소서



*후원계좌 KPM조진호
KEB하나 9900-147-05217

*입금확인: (042)627-8082
(선교부재정실)

*이메일
jinho0415@naver.com
xxpoohx1004@naver.com

*카카오톡 아이디
jinhojo0415 / xpoohx1004

*070-8638-0668

*선교편지관리자
010-4047-0664(박혜영권사)
010-7757-6496(권혜리자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동역하는 교회와 성도님 가정에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은 7월 3일 맥추 감사주일로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코소보의 7월 10일은 “Kurban Bayram(쿨반 바이람)”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쿨반은 한국어 성경에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이람은 축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축제의 기원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숫양을 준비해 두셔서 이삭 대신 아브라함이 숫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사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코소보는 이 날이 큰 명절입니다. 길거리에서 많은 상인들이 양을 팔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양을 사갑니다. 가족의 안녕을 바라며 죄를 씻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양을 잡습니다. 2000년 전에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매년 양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코소보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서 매년 양을 잡는 헛된 구습에서 벗어나서 어린양 예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이 금요 모임>



<센터 모임>

금요일 교회 어린이 모임에 참석해 아이들과 교제하고, 주일에 교회 예배를 섬기고, 주중에는 센터에서 한국의 방과 후 교실처럼 공부를 가르쳐 주고 탁구도 가르쳐 주고 아이들과 교제하고 미술활동도 하고 이번 달 부터는 토요일 오전에 어린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문화의 날>

학교에서 다문화의 날에 수아, 안나는 한복을 입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더 이상 저희들을 보고 중국 사람이라고 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아 초등학교 졸업>

수아가 얼마 전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국과 조금 다르게 5학년까지 한 후에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곳에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이집부터 다녔던 수아가 모든 초등학교 과정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학교부터는 영어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수아가 가면서 안나도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는 나라에 상관없이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년 수만 채우면 한국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대학에서 현지어인 알바니아어는 인정이 되지 않고 영어 성적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soft heart, hard feet!”

그래서 영어 학교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가게 될 학교는 저희가 지금 있는 곳에서 1시간 40분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수업 시작이 오전 7시 30분이고 스쿨버스도 없는지라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 맞는 집을 새롭게 잘 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아, 안나가 새로운 학교와 다시 배울 언어인 영어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시간들이었기에 3년 동안 선

교사 수련회가 없었습니다.

3년 만에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통해서 이웃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고 교체하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구마전도로 유명한 김기동목사님의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지역에 있다 보니 관계를 통한 전도를 생각하다 만나는 사람에게 바로 바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도전이 된 것은 이곳이 이슬람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직설적인 전도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 특수한 지역적 상황으로 관계를 생각하고 조심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아, 안나도 3년 만에 한국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아, 안나가 선교지에서 밝고, 예의도 바르고,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시고 봉사 오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지 아이들을 잘 키워 주셔서 감사하고 더욱 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수아, 안나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